

## 張參 《五經文字》의 楷書 部首 字形 확립에 대한 공헌

李景遠\*

<목 차>

1. 緒論
2. 附形 部首의 확립
  - 2.1 部首 目錄에 나타난 附形部首
  - 2.2 본문 部首 脚注에 나타난 附形部首
  - 2.3 올림자 脚注에 나타난 附形部首
3. 主部首 字形의 근거 제시
  - 3.1 본문 部首 脚注에 나타난 부수 자형의 근거
  - 3.2 올림자 脚注에 나타난 부수 자형의 근거
  - 3.3 새로운 部首字形을 제시한 것
4. 結論

### 1. 緒論

張參의 《五經文字》는 唐代 字樣學의 대표 저작 가운데 하나이다. 자양학이란 한자 楷書 자형의 正訛를 판정하고 나아가 正字標準을 제시하는 학술조류이다<sup>1)</sup>. 《五經文字》에는 唐代 정부의 어문표준화정책이 반영된 국정표준자형이 수록 제시되어 있다. 776년에 찬술된 《五經文字》는 837년에 완성된 唐

玄度の 《九經字樣》과 함께 《開成石經》에 부록으로 각석되어 자양학 운동의 최종 결과물로 자리매김하였다<sup>2)</sup>.

字樣學의 임무는 크게 楷書 자형의 正訛 판정과 아울러 標準字形을 제시하는 것과 楷書 한자를 분류하여 귀속 시키는 部首에 대한 數量·부수 字形의 確定 등 두 방면을 포함하고 있다. 부수 자형의 확정은 또 附形部首의 확립과 부수 字形의 유래에 대한 근거제시 등 두 방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의 자전은 증보와 유전과정에서 원래 모습을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五經文字》는 837년 《開成石經》의 부록에 석각된 이래 근 12세기동안 원래 모습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 石碑라는 서사 재료의 반 영구성에 힘입은 것이다. 따라서 《五經文字》는 唐나라 시기의 해서 표준 문자 자형과 해서 부수 자형은 물론이고, 정자관 및 당시 어문 사용 현황을 고스란히 간직한 실물자료이다.

《五經文字》는 160부(총 3250자<sup>3)</sup>)를 귀속시키고 있다. 《說文》540부와 《玉篇》542부와 비교하면 무려 각각 380부와 382부가 감소된 것이다. 《五經文字》의 한자 부수 수량에 대한 개정은 明·梅膺祚의 《字彙》(1615년 편찬)의 214부보다 무려 839년이나 앞서 추진된 것이다.

《五經文字》는 기본적으로 《說文》의 부수분류법을 채택하였지만, 부수 수량이나 부수 자형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唐代 正字學(字樣學)의 연구의 권

\*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국제문화대학 중국학과 부교수.

1) 唐蘭이 《中國文字學》에서 이런 학술 조류를 字樣學이라고 명명하였으며, 또 별칭으로 正字學 또는 正名學이라고도 한다. 서양에서도 正書法이나 綴字法으로 번역되는 Orthography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에 준하면 字樣學을 영문으로는 Chinese Orthography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九經字樣·牒文》에서 “太和漆年拾貳月伍日勅覆定九經字體者, 今所詳覆多依司業張參《五經文字》爲准(태화 7년 12월 5일 칙명을 받들어 九經의 字體를 검정하게 되었는데, 이제 상세하게 사정함에 주로 國子司業인 張參이 지은 《五經文字》에 기준하였다.”라고 하였고, 《九經字樣·序》에서 “又於《五經文字》本部之中, 採其疑誤舊未載者, 撰成《新加九經字樣》一卷(또 《五經文字》의 본문 가운데 오류가 의심되거나 미 수록된 글자를 채집하여 《新加九經字樣》한권을 지었다.”라고 하였다. 즉 《九經字樣》은 《五經文字》의 증보본에 해당한다. 또 《新加九經字樣》이란 정식 서명에 ‘新加(새로 더한)’라고 한 것으로도 이 책이 《五經文字》의 미비점을 증보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九經字樣·牒文》과 《九經字樣·序》는 清·鮑廷爵의 《後知不足齋叢書》初編第二函 1488·1499쪽을 참고하기 바람.

3) 《五經文字·序例》에서 “凡一百六十部, 三千二百三十五字, 分爲三卷(무릇 160부, 3253자로, 3권으로 나누었다).”라고 하였다(清·鮑廷爵의 《後知不足齋叢書》初編第二函, 1151쪽 참고바람). <序例>에서 3235자라고 하였는데, 현전본의 수록 표제자 수는 3250자이며, 重文을 제외하면 2976자이다(李景遠, 《張參五經文字之研究》, 國立政治大學 中國文學研究所 碩士學位論文, 1990년2월).

위자인 施安昌은 《五經文字》의 가장 중요한 개혁은 《說文》이 소전으로 부수를 정한 것과 달리, 《五經文字》는 楷書로 부수를 정한 것이라고 하였다<sup>4)</sup>.

즉 《五經文字》는 楷書가 통용되던 시기에 알맞은 부수체계를 수립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방면에서 해서 부수 체계를 완성하였을까? 그것은 부수 자형의 확립·부수 수량의 개혁 등 두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五經文字》의 부수 자형 확립에 대한 공헌을 주요 탐구 대상으로 하며, 부수 수량의 개혁에 대한 연구는 차후과제로 미룬다.

## 2. 附形 部首의 확립

《五經文字》이전에 楷書로 부수자형을 세운 것은 《玉篇》이다. 《玉篇》은 기존의 《說文》11부를 없애고, 새로 13부를 증보하여 542부수를 내세웠다. 《玉篇》에서 없앤 부수는 哭·延·畫·教·眉·白·鬣·歛·后·冫<sup>5)</sup>·弦 등 11부이다. 《玉篇》에서 증보한 부수는 父·云·彙·尢·處·兆·磬·索·書·牀·弋·單·丈 등 13부이다. 부수 수량의 증감상황으로 보면 《玉篇》의 《說文》부수에 대한 개정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楷書가 통행하던 시대에 부합하는 부수 체계를 본격적으로 수립한 것은 《五經文字》이다.

부수는 편방으로 쓰일 때 자형이 변이될 수 있다. 즉 단독으로 쓰일 때 자형인 心은 다른 편방과 결합하여 왼쪽에 위치할 때는 忄이나 忄의 형태로 변이된다. 이런 까닭으로 어떤 부수는 둘 이상의 자형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水부에

4) 施安昌, <唐人對《說文解字》部首的改革>, 《古宮博物院院刊》1981年第4期, 39쪽 참고바람.

5) 《說文》冫部에서 “冫, 籀文大, 改古文, 亦象人形(주문 大자로, 고문을 고친 것이다. 역시 사람의 형상을 본 뜬 것이다).”라고 하였다. 李孝定은 <論《玉篇》增刪《說文》部首—漢字新分部法初探>에서 冫자는 小篆 大자의 夨변자형이며, 소속된 글자 奕·契·臯·奚·奕·龔·巖 등 7자는 모두 大部에 귀속시킬 수 있으므로 冫部는 최우선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소속된 글자는 부수 편방의 위치에 따라 冫와 氷 등으로 변이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水를 主部首라하고, 冫와 氷를 附形部水라고 한다.

중국역대 자전 가운데 附形部首의 존재를 직접 부각시킨 최초의 전적은 바로 《五經文字》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논증하기 위하여 《五經文字》에 나타난 부형부수를 두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2.1 部首 目錄에 나타난 附形部首

附形部首는 각권의 맨 앞쪽에 있는 부수목록에서 ‘又作某(또 이 자형으로도 쓴다)’·‘又作某及某(또 이 자형과 이 자형으로도 쓴다)’ 등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부수 목록에 나타난 부형부수를 《五經文字》의 부수 배열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手部에서 “手部, 又作扌(手部的 手는 편방으로 쓰일 때, 또 扌자형으로도 쓴다).”라고 하였다. 즉 手部的 부형부수 扌를 제시하고 있다.

②人部에서 “人部, 又作亻, 與人同(人部的 人은 편방으로 쓰일 때, 또 亻자형으로도 쓰는데, 人과 같다).”라고 하였다. 즉 人의 부형부수 亻을 제시하고 있다.

③目部에서 “目部, 又作𠂔(目部的 目은 편방으로 쓰일 때, 또 𠂔자형으로도 쓴다).”라고 하였다. 즉 目部的 부형부수 𠂔을 제시하고 있다.

④舟部에서 “舟部, 又作𠂔(舟部的 舟는 편방으로 쓰일 때, 또 𠂔자형으로도 쓴다).”라고 하였다. 즉 舟部的 부형부수 𠂔를 제시하고 있다.

⑤丹部에서 “丹部, 又作卩(丹部的 丹은 편방으로 쓰일 때, 또 卩자형으로도 쓴다).”라고 하였다. 즉 丹部的 부형부수 卩를 제시하고 있다.

⑥心部에서 “心部, 又作忄及小(心部的 心은 편방으로 쓰일 때, 또 忄과 小자형으로도 쓴다).”라고 하였다. 즉 心部的 부형부수 忄과 小를 제시하고 있다.

⑦白部에서 “白部, 又作β(白部的 白은 편방으로 쓰일 때, 또 β자형으로도 쓴다).”라고 하였다. 白部的 부형부수 β를 제시하고 있다.

⑧水部에서 “水部, 又作彡(水部の 水는 편방으로 쓰일 때, 또 彡자형으로도 쓴다).”라고 하였다. 즉 水部の 부형부수 彡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五經文字》는 역대 자전 가운데 최초로 楷書 附形部首를 제시하고 있다. 《五經文字》보다 이른 시기 자전인 《玉篇》(원본과 송본 포함)에는 오로지 主部首만 제시되어 있고, 附形部首에 대한 언급은 없다.

## 2.2 본문 部首 脚注에 나타난 附形部首

부형부수에 대한 제시와 그에 대한 설명은 부수 목록뿐만 아니라, 본문의 부수 각주에서 부형부수의 자형과 그 자형 근거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 여기서 본문 부수 각주에 나타난 부형부수를 《五經文字》의 차례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手部 각주에서 “手部, 拳也. 凡在左者皆依《石經》作扌(手部, 주먹이라는 뜻이다. 무릇 좌측에 위치하는 것은 모두 《石經》에 의거하여 扌자형으로 쓴다).”라고 하였다. 《五經文字》手部에는 掣拳과 指樞같은 手와 扌형으로 구성된 글자들이 수록되어 있다. 즉 편방의 위치에 따라 변이된 자형을 감안하여 부형부수 扌를 제시한 것이다.

②人部 각주에서 “人部, 此一部多作亻, 亻與人同(人部, 이 부수는 주로 亻자형으로 많이 쓰는데, 亻은 人과 같다).”라고 하였다. 《五經文字》人部에는 僉企와 儒倅같은 人과 亻형으로 구성된 글자들이 수록되어 있다. 즉 편방의 위치에 따라 변이된 자형을 감안하여 부형부수 亻을 제시한 것이다.

③肉部 각주에서 “肉部, 如叔反. 《說文》肉字在左右及下皆作肉, 與肉同. 今依《石經》變肉作月偏旁從月者皆放此(肉部, 자음은 如叔반절이다. 《說文》의 肉字는 좌우 및 아래에 위치해도 모두 肉으로 썼다. 肉와 같다.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肉을 月로 쓴다. 편방 가운데 月로 구성된 것은 모두 이와 같은

형식을 적용(모방)한다.”라고 하였다. 《五經文字》肉部에는 麤와 胄胤같은 肉과 月형으로 구성된 글자들이 수록되어 있다. 즉 편방의 위치에 따라 변이된 자형을 감안하여 부형부수 月을 제시한 것이다.

④冫部 각주에서 “冫部, 工瓦反, 羊角也. 象形. 俗呼古患反, 作冫無中丨(冫部, 자음은 工瓦반절이다. 양뿔이다. 상형자이다. 속음으로 古患반절로 발음하는데, 冫으로 쓰며, 가운데丨가 없다).”라고 하였다. 冫형에서丨를 없애고 冫로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부수에 수록된 글자의 편방이나 부건은 冫이 아니고, 冫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冫部에 수록된 萑萑舊와 같은 글자는 모두 冫형이 아닌 冫편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원래 대표 자형에서 部件‘丨’이 생략된 부형부수 冫을 제시하고 있다.

⑤心部 각주에서 “心部, 象形. 《說文》作㣺, 今依《石經》作心, 其在左者經典相承隸省作忄又作忝(心部, 상형자이다. 《說文》에서 㣺로 썼는데, 지금《石經》에 의거하여 心으로 쓴다. 그것이 좌측에 위치할 때 ‘경전상승예생(경전에서 널리 전승하여 쓰이는 ((소전에서) 생략된 예서(해서) 자형)’은 忄으로 썼고, 또 忝로 썼다).”라고 하였다. 해서 부수의 원형과 후대 변형된 자형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또 위치에 따른 자형의 변화와 그 근거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五經文字》心部에는 忌怨과 慕忝과 怪憤같은 心·忝·忣형으로 구성된 글자들이 수록되어 있다. 즉 편방의 위치에 따라 변이된 자형을 감안하여 부형부수 忣·忣을 제시한 것이다.

⑥犬部 각주에서 “犬部, 丘泫反. 今依《石經》凡在左者皆作犴, 犴音犬(犬部, 자음은 丘泫반절이다.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무릇 좌측에 위치하는 것은 모두 犴으로 쓴다. 犴의 자음은 犬이다).”라고 하였다. 《五經文字》犬部에는 獒와 猓狗와 같은 犬과 犴형으로 구성된 글자들이 수록되어 있다. 즉 편방의 위치에 따라 변이된 자형을 감안하여 부형부수 犴을 제시한 것이다.

⑦阜部 각주에서 “阜部, 輔九反, 今依《石經》作阝(阜部, 자음은 輔九반절이다.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阝로 쓴다).”라고 하였다. 《玉篇》354阜部에서: “阜, 扶九切, 大陸也. …… 阜, 同上(阜의 자음은 扶九반절이다. 대륙이라는

뜻이다. …… 冫는 위의 글자와 같다.”라고 하였다. 《五經文字》의 일반적인 통례에 의거하면 이 부수의 대표자형은 《石經》에 따라 冫이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說文》소전 자형을 대표 자형으로 내세우고 있다<sup>6)</sup>.

《五經文字》冫部에는 陵陰陟 등 모두 우측 편방이 冫형으로 구성된 글자들이 수록되어 있다. 즉 편방의 위치에 따라 변이된 자형을 감안하여 부형부수 冫를 제시한 것이다. 冫部에 대하여는 冫(邑)부와 관련지어 탐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래 冫(邑)부에서 더욱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⑧ 玉部 각주에서 “玉部, 象三玉相連形. 古文作𠄎, 經典相承隸省作玉, 凡字玉在左者皆省點(玉部, 세 개의 옥을 서로 이은 모양을 본뜬 것이다. 고문은 𠄎로 쓴다. ‘경전상승예생(경전에서 널리 전승하여 쓰이는 ((소전에서)) 생략된 예서(해서) 자형)’은 玉으로 쓴다. 무릇 글자에서 玉이 좌측에 위치하면 모두 점을 생략하였다.”라고 하였다. 玉자의 古文자형과 隸變이후 자형을 제시하고, 나아가 玉자가 좌측 편방으로 쓰일 때는 點을 생략하여 王의 자형을 띠고 설명하고 있다. 《五經文字》玉部 에는 珏(珏)과 琢(琢)같은 玉<sup>7)</sup>과 王형으로 구성된 글자들이 수록되어 있다. 즉 편방의 위치에 따라 변이된 자형을 감안하여 점이 생략된 부형부수 王을 제시한 것이다.

⑨ 刀部 각주에서 “刀部, 今依《石經》作刀. 凡字在右者皆省作刂(刀部,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刀로 쓴다. 무릇 글자에서 刀가 우측에 위치하면 모두 생략하여 刂로 쓴다.”라고 하여, 刀는 《石經》에 의한 자형이며, 우측에 위치할 때는 모두 생략되어 刂로 쓴다고 하였다. 《五經文字》刀部에 수록된 剛創刺刺 刪割割制勿票乞刪割 등 22자 가운데, 오로지 劒(省點)는 우측 편방으로 사용되었지만 刀형을 하고 있다<sup>8)</sup>. 편방의 위치에 따라 변이된 자형을 감안하여 부형

6) 《玉篇》354번째 부수에서는 冫를 대표부수 자형으로 내세우고 있다. 《字彙》에서도 冫를 대표 자형으로 내세우고, 또 그 각주에서 “阜部, 冫同, 冫在左者同”라고 하였다. 즉 두 자전 모두 冫를 대표자형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字彙》에서는 冫를 부형부수로 제시하고 있다.

7) 玉部 각주에서 玉형이 좌측에 위치하면 모두 點을 생략한다고 하였는데, 수록자 珏(珏)처럼 點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도 발견된다.

8) 《玉篇》266刀部에 실린 ‘初’자는 刀가 우측편방에 위치하지만 刂로 바뀌지 않았다. 이런 예를 통해 刀가 우측 편방으로 쓰일 때, 대부분은 刂로 변이되지만, 반드시 모두 刂형으로

부수 刂를 제시한 것이다.

⑩ 水部 각주에서 “水部, 準也, 象衆流之貌. 凡在左者皆作氵, 與水同(水部, 평평하다는 뜻이다. 물길이 여러 갈래 흐르는 모양을 본 뜬 것이다. 무릇 水가 좌측에 위치하면 모두 氵로 쓰는데, 水와 같다.”라고 하였다. 《五經文字》水部에는 潁潁漿滌과 泰黍黎와 沱沛深 같은 水·水·氵형으로 구성된 글자들이 수록되어 있다. 편방의 위치에 따라 변이된 자형을 감안하여 부형부수 氵를 제시한 것이다

⑪ 食部 각주에서 “食部, 《說文》從亼從皀. 皀, 皮立反. 今依《石經》作食. 凡字在左者, 又省一畫作飠. 凡從皀者鄉既之類皆同(食部, 《說文》에서는 亼과 皀으로 구성되어 있다. 皀의 자음은 皮立반절이다.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食으로 쓴다. 무릇 글자에서 좌측에 위치하면 또 한 획을 줄여서 飠으로 쓴다. 무릇 皀으로 구성된 鄉既와 같은 부류 들은 모두 (이와)같다.”라고 하여, 食 자형은 《石經》에 근거한 한 것이며, 또 부형부수인 飠을 제시하고 있다. 《五經文字》食部에는 飧饗饗饗饗과 饌와 같은 食과 飠형으로 구성된 글자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飠(飠)편방으로 변이되었다. 즉 편방의 위치에 따라 변이된 자형을 감안하여 부형부수 飠(飠)을 제시한 것이다

### 2.3 올림자 脚注에 나타난 附形部首

①정작 舟部 각주에는 “象形”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지만, 이 부수에 수록된 소속자 兪(兪)조의 각주에서 “兪(兪), 上《說文》, 從亼從舟從刂, 工外反; 下依《石經》變舟作舟, 自兪已下本皆從舟今並作舟(兪(兪), 위 글자는 《說文》의 자형으로 亼와 舟와 刂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음은 工外반절이다. 아래 글자는 《石經》에 의거하여 舟가 변이되어 舟로 쓴다. 兪(兪)자 이하에 수록된 글자는 본래 모두 舟로 구성되었으나, 지금은 모두 舟로 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바뀌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림 수록된 표제자의 각주에서 부수편방의 근거를 밝히고 그 편방 변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즉 舟 편방을 가진 글자는 月형으로 변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부형부수 月을 제시하고 있다.

②丹部 部首 각주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데, 수록된 표제자의 하나인 靑 靑字組에서 “靑靑, 上《說文》, 從丹從舟. 下《石經》. 凡清請之類皆從靑(靑靑, 위 글자는 《說文》의 자형으로 靑과 丹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글자는 《石經》의 자형이다. 무릇 清請과 같은 부류는 모두 靑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靑편방을 가진 모든 글자는 丹이 冫으로 변이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丹의 부형부수 冫을 제시하고 있다.

③水部 각주에서는 “水部, 凡在左者皆作彡(水部, 무릇 좌측에 위치하면 모두 彡로 쓴다)”라고 하여, 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런데 水部 泰黍黎에서 “泰黍黎, 自此已上並下從水, 相承省作水, 從小從灬者訛(泰黍黎, 黎자 이상의 3자는 모두 아래 부분은 水를 구성요소로 하는데, 널리 전승하여 내려온 자형은 생략하여 水로 쓴다. 小라든가 灬형으로 구성된 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표제자의 각주에서 부형부수인 水를 제시하고 있다.

### 3. 主部首 字形의 근거 제시

《五經文字》는 해서 부수 자형의 근거를 제시한 최초의 문헌이다<sup>9)</sup>. 여기서 《五經文字》에서 제시한 해서 부수 자형의 주요 근거를 정리하면 아래의 몇 가지이다.

9) 原本《玉篇》잔권과 증보본인 宋本《玉篇》을 막론하고 《玉篇》에는 부수 자형의 來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 3.1 본문 部首 脚注에 나타난 부수 자형의 근거

《五經文字》160部 가운데 전통 《說文》부수와 자형에 변화가 발생한 부수에 대하여는 그 자형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說文》소전에서 비롯된 부수 자형 외에, 해서 부수 자형은 주로 《石經》에 근거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經典相承隸省<sup>10)</sup>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3.1.1 《石經》에 근거한 자형

①木部 각주에서 “木部, 冒也. 冒地而生. 從中, 下象根形. 今依《石經》省作木, 凡字從木皆放此(木部, 뒤집고 나온다는 뜻이다. 땅을 뒤집고 나와 생장한 것이다. 木로 구성되었으며 아래는 뿌리의 모양을 본 뜬 것이다.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생략하여 木으로 쓴다. 무릇 글자에서 木으로 구성된 것은 모두 이와 같은 형식을 적용(모방)한다).”라고 하였다. 부수 자형을 《石經》에 의거하여 木형으로 확정하였다는 것이다.

②手部의 각주에서 “手部; 拳也. 凡在左者皆依《石經》作扌(手部, 주먹이라는 뜻이다. 무릇 좌측에 위치한 것은 모두 《石經》에 의거하여 扌로 쓴다).”라고 하였다. 즉 좌측 편방으로 쓰일 때는 부수 자형을 《石經》에 의거하여 扌형으로 확정하였다는 것이다.

③辵部 각주에서 “辵部, 《說文》作辵, 從彳從止. 今依《石經》作此(辵部,

10) 《石經》이라 함은 한나라 蔡邕이 주도한 《熹平石經》과 魏나라 《三體石經》을 가리킨다. 經典相承隸省이란 그 당시 통행하던 경전 필사본 가운데 신뢰성을 갖춘 판본에 서사되어 널리 전승된 (소전에서)생략된 예서(해서)자형을 가리킨다. 《石經》은 경전본문이 각석된 경전표준문자이고, 經典相承隸省은 唐나라시기에 유전된 경전 모범 필사본의 경전표준 문자에 해당한다. 즉 《石經》의 자형을 우선시하였으며, 《石經》에 남아 있지 않은 자형은 차선책으로 모범적인 경전판본에서 구하였다는 것이다. 이 두 자형의 來源은 모두 경전과 상관이 있는데, 《五經文字》가 오로지 경전문자의 정리를 주요한술 목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전제하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說文》에는 辵으로 쓰는데, 彳과 止로 구성된 것이다.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이 辵의 자형으로 쓴다.”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주부수는 《說文》의 형체를 따르고 있으나, 이 부수는 《石經》을 주부수로 제시하고, 《說文》 소 전체를 부형부수로 간주하고 있다. 이 같은 처리 방식은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처리 방식은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은 것이다. 첫째, 당시 통행하던 辵부에 속하는 글자들이 거의 辵형으로 구성되어 사회에 널리 통용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추정된다.<sup>11)</sup> 둘째, 《五經文字》가 《石經》에 각석된 자형을 추존한 것이다.

④ 彳部 각주에서 “彳部, 《說文》從彳引之. 今依《石經》作彳(彳部, 《說文》에서는 彳의 끝을 죽 끌어 내린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彳로 쓴다.”라고 하여, 해서 부수 자형의 근거가 《石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⑤ 𠂔部 각주에서 “𠂔部, 亡往反, 《說文》作网, 今依《石經》作𠂔, 凡從𠂔放此, 非從四, 四從口中八, 與𠂔不同(𠂔部, 자음은 亡往반절이다. 《說文》에는 网으로 썼는데,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𠂔으로 쓴다. 무릇 𠂔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형식을 적용(모방)한다. 四를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다. 四는 口가운데 八로 구성되어 있으며, 𠂔과는 다르다.”라고 하였다. 수록된 글자의 자형으로 보면 이 부수의 대부분 수록자는 𠂔로 구성되어 있고, 극히 일부는 𠂔(예를 들어 𠂔자 같은 경우)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 부수의 《說文》부수자형은 网이고, 해서 主部首는 《石經》에서 사용한 𠂔이고, 해서 附形部首는 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五經文字》에서는 《石經》의 자형을 과감하게 主部首로 내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⑥ 肉部 각주에서 “肉部, 如叔反, 《說文》肉字在左右及下皆作肉, 今依《石經》

11) 《五經文字》辵部에서는 소전체 부수 자형인 辵을 오히려 辵부의 소속자로 취급하여 첫 번째 표제자로 실고 있다. 전통적인 대표 부수 자형을 현실에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부수 자형으로 대체한 것이다. 즉 편방으로 구성되는 빈도가 높은 부수자형을 主部首로 삼고,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은 부수 자형을 附形部首로 뒤바꾼 것이다. 이를 참고하면 尙水部에서 편방 구성도가 높은 彳가 主部首가 되고, 그 나머지 水와 氷가 附形部首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합적하다. 문자를 아우르는 능력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글자가 구성요소로 삼고 있는 자형을 주부수로 내세우는 것도 상정해 볼 만하다.

變肉作月, 偏旁從月者皆放此(肉部, 자음은 如叔반절이다. 《說文》의 肉字는 좌우 및 아래에 위치해도 모두 肉으로 썼다. 肉와 같다.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肉을 月로 쓴다. 편방 가운데 月로 구성된 것은 모두 이와 같은 형식을 적용(모방)한다.”라고 하였다. 해서 부수 자형 月은 《石經》에 근거한 것이며, 月을 편방으로 하는 모든 글자는 이와 같은 형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五經文字》에서 肉部の 부형 부수인 月은 《石經》에 근거한 자형임을 밝히고 있다.

⑦ 魚部 각주에서 “魚部, 象魚尾形, 《說文》作𩺰, 今依《石經》作魚(魚部, 물고기 꼬리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說文》에는 𩺰로 썼는데,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魚로 쓴다.”라고 하여, 해서 부수 자형 魚는 《石經》에 근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⑧ 髟部 각주에서 “髟部, 必由反, 長髮森森. 從長從彡, 今依《石經》作髟. 凡從髟者放此(髟部, 자음은 必由반절이다. 긴 머리칼이 아래로 드리워진 모양이다. 長과 彡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髟로 쓴다. 무릇 髟으로 구성된 것은 이와 같은 형식을 적용(모방)한다.”라고 하였다. 즉 해서 부수 자형 髟는 《石經》에 근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⑨ 心部 각주에서 “心部, 象形. 《說文》作𠂔, 今依《石經》作心, 其在左者經典相承隸省作𠂔又作𠂔(心部, 상형자이다. 《說文》에서 𠂔로 썼는데,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心으로 쓴다. 그것이 좌측에 위치할 때 ‘경전상승예생(경전에서 널리 전승하여 쓰이는 ((소전에서) 생략된 예서(해서) 자형)’은 𠂔으로 썼고, 또 𠂔로 썼다.”라고 하였다. 해서 편방의 원형과 위치에 따른 형태의 변화와 그 근거에 대하여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해서 부수 자형 心은 《石經》에서 근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⑩ 犬部 각주에서 “犬部, 丘泫反. 今依《石經》凡在左者皆作犴, 犴音犬(犬部, 자음은 丘泫반절이다.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무릇 좌측에 위치하는 것은 모두 犴으로 쓴다. 犴의 자음은 犬이다.”라고 하였다. 좌측 편방으로 쓰일 때 자형인, 부형부수 犴은 《石經》에 의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⑪ 口部 각주에서 “口部, 音節. 《說文》作𠂔, 今依《石經》並省點(口部, 자음

은 節이다. 《說文》에는 冫로 썼는데,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모두 冫를 생략한다.”라고 하였다. 《說文》에서 건립한 소전 자형은 冫이지만, 현재 주부수로 내세우고 있는 冫은 《石經》에 의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⑫自部 각주에서 “自部, 輔九反, 今依《石經》作 冫(自部, 자음은 輔九반절이다.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冫로 쓴다).”라고 하였다. 즉 自部의 부형부수 冫는 《石經》에 의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sup>12)</sup>.

⑬刀部 각주에서 “刀部, 今依《石經》作 刀. 凡字在右者皆省作 刀(刀部,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刀로 쓴다. 무릇 글자에 우측에 위치한 것은 모두 생략하여 刀로 쓴다).”라고 하여, 주부수 刀는 《石經》에 의거한 자형이며, 우측에 위치할 때는 모두 생략되어 刀로 쓴다고 하여 부형부수를 제시하고 있다.

⑭門部 각주에서 “門部, 從二戶, 今依《石經》作 門(門部, 두 개의 戶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門으로 쓴다).”라고 하여, 해서 부수 자형 門은 《石經》에 각석된 예서(해서)에 근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⑮食部 각주에서 “食部, 《說文》從亼從皀. 皀, 皮立反. 今依《石經》作 食. 凡字在左者, 又省一畫作 飠. 凡從皀者鄉既之類皆同(食部, 《說文》에서는 亼과 皀으로 구성되어 있다. 皀의 자음은 皮立반절이다.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12) 《五經文字》에서는 自部의 부형부수로 冫를 제시하였다. 또 冫를 邑部의 主部首로 내세우고 있다. 《五經文字》의 自部는 《說文》의 소전 자형에 근거한 것이고, 《玉篇》의 邑部는 《五經文字》에서 “ 冫部, 音邑( 冫部의 冫의 발음은 邑이다)”라고 하여, 곧바로 冫를 邑部의 유일한 해서 부수 자형으로 내세우고 있다. 《玉篇》제354부 阜部에서 “阜, 扶九切, 大陸也. …… 自, 同上(阜의 자음은 扶九반절이다. 대륙이라는 뜻이다. …… 自는 위의 글자와 같다).”라고 하여, 阜가 부수 대표 자형 즉 主部首로 되어 있고, 自는 이체자로 기록되어 있다. 《玉篇》21邑部에서도 부형부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字彙》邑部에서 “ 冫部, 冫同(邑部, 冫과 같다)”라고 하였고, 《字彙》阜部에서 “ 阜部, 阜同, 冫在左者同(阜部, 阜과 같고, 冫가 좌측에 위치한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즉 主部首 邑部의 부형부수로 冫을, 主部首 阜部의 부형부수로 冫를 내세우고 있다. 결론적으로 自의 부형부수로 冫를, 《玉篇》 邑部를 冫部로 대체한 것은 《五經文字》가 처음이다. 또한 《玉篇》의 부수 자형 체계를 개선한 것은 《五經文字》이고, 《字彙》는 《五經文字》를 대체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現代漢語詞典》에서는 주부수를 邑部와 阜部 자형으로, 부형부수로 冫(在左) 冫(在右)로 하고 있다. 2009년 2월 25일 중국 교육부에서 공포한 《漢字部首表》에는 201개의 주부수와 99개의 부형부수를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邑部는 冫(在右)로, 阜部는 阜( 冫在左)로 되어 있다. 楷書 편방의 구성 빈도로 살펴보면 冫을 冫(左), 阜를 冫(右)라고 표기하는 것이 가장 명료할 것으로 보인다. 《五經文字》에서 ‘冫( 冫)’과 ‘阜( 冫)’는 ‘冫’와 ‘冫( 冫)’로 되어 있다.

食으로 쓴다. 무릇 글자에서 좌측에 위치하면 또 한 획을 줄여서 冫으로 쓴다. 무릇 冫으로 구성된 鄉既와 같은 부류 들은 모두 (이와)같다.”라고 하여, 食 자형은 《石經》에 근거한 것이며, 또 부형부수인 冫을 제시하고 있다.

⑯幸部 각주에서 “幸部, 女涉反. 所以犯驚人也. 《說文》從大從干, 干音干. 今依《石經》作 幸(幸部, 자음은 女涉반절이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형구이다. 《說文》에서는 大와 干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干의 자음은 干이다.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幸으로 쓴다).”라고 하였다. 즉 해서 자형 幸은 《石經》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⑰女部 각주에서 “女部, 普卜反. 小擊也. 《說文》作 支, 從卜從又, 今依《石經》作 女(女部, 자음은 普卜반절이다. 살살 치다는 뜻이다. 《說文》에서는 支으로 쓰는데, 卜과 又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石經》에는 女로 쓴다).”라고 하였다. 즉 소전 부수 자형은 支이고, 해서 자형 女은 《石經》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⑱歹部 각주에서 “歹部, 几承反, 《說文》作 歹, 今依《石經》作 歹, 歹, 列骨之殘(歹部, 자음은 几承반절이다. 《說文》에서는 歹로 썼는데,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歹로 쓴다. 歹은 뼈가 부서진 잔재이다).”라고 하였다. 즉 소전 부수 자형은 歹이고, 해서 부수 자형인 歹은 《石經》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에서 열거 분석한 것처럼 《五經文字》 해서 부수 자형의 주요 근거는 《石經》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石經》에 각석된 자형을 주요 근거로 삼았을까? 두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石經》자형이 隸變 이후 문자 사용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漢代에 각석된 《石經》은 바로 한나라 시기의 경진 표준본이다. 바로 한나라 정부에서 확정된 표준자체에 의거하여 각석한 것으로, 당시 정부의 어문표준화정책의 최종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형은 당연히 당시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던 자형으로 취사선택을 하였을 것이고, 또 표준에 부합한 자형일 것이 확실하다. 이에 《五經文字》는 비

록 《說文》에 수록된 육서의 요체를 갖춘 자형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것은 《石經》자형에 근거하였던 것이다<sup>13)</sup>. 전통도 중요시 하였지만, 거기에 속박되지 않는 시의적이고 개방적인 문자관을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五經文字》의 태생적인 문제이다. 《五經文字》의 찬술목적은 경전문자의 정리를 위한 것이다<sup>14)</sup>. 따라서 당연히 《石經》에 각석된 자형과 그 편방을 금과옥조처럼 여겼을 것이다. 《石經》에 대한 고도의 충성도를 나타낸 것을 위에서 열거한 木·辵·彳·冫·魚·髟·心·口·刀·門·食·幸·女·歹 등 부수를 모두 《石經》에서 취한 것으로부터 인증이 된다. 특히 辵部를 主部首로 내세우고, 다른 자전에서 主部首 역할을 하던 辵을 단순 소속자로 처리한 것은 그야말로 《石經》을 추존한 처리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전문자의 대표가 《石經》이며, 그 자형에 의거하여 경전을 필사하였기 때문에, 《說文》자형도 중요하지만 경전에서 널리 오래 쓰인 자형을 추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五經文字》는 漢代 《石經》이나 魏나라 《石經》의 정신에 입각하여 경전문자를 정리하였고, 또 《開成石經》의 글자본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石經》의 자형을 우선

13) 《五經文字·序例》에서 “《說文》體包古今，先得六書之要。有不備者，求之《字林》。其或古體難明，衆情驚愕者，則以石經之餘，比例爲助(《說文》자형은 고금을 포괄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육서의 요체를 지녔다. 《說文》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자형은 《字林》에서 구하였으며, 혹 고체라서 알기 쉽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황당하게 만드는 자형은 《石經》의 잔존 부분 자형의 예에 견주어 처리하였다)”라고 하였다.

14) 《五經文字·序例》에서 “自非經典文義之所在，雖切於時略不集錄，以明爲經不爲字也(경전의 문외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비록 시기가 절박하다고 하여도 생략하고 싶지 않은 것은 경전문자를 위한 것이지 일반문자를 위한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延자 각주에서 “凡字從延者放此。案字書從延者更有延字，以經典及注並無其文，故不出，他皆放此(무릇 延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은 모두 이와 같은 형식을 적용(모방)한다. 생각건대 자서에 延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 또 延자가 있는데, 경전과 주에 그 글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제자로 내놓지 않는다. 다른 것도 모두 이와 같은 형식을 적용(모방)한다)”라고 하여 經傳注疏와 상관없는 글자는 수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경전 문자를 위한 爲經字樣이지, 일반 문자를 위한 爲字樣이 아님을 확실히 표명한 것이다. 또 耒部 耨자 각주에서 “耨，案字書耨字從木，經典相承從耒久，故不可改(耨자는 생각건대 자서에서 木을 구성요소로 하였지만, 경전에서 耒 편방으로 오래 쓰인 터라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비록 자서에 실린 전통적인 자형이 옳다고 하지만, 경전에서 오랫동안 전승하여 사용한 자형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바로 爲經字樣이 추구하는 목표와 그 주요 근거를 언급한 것이다.

기준으로 여겼을 것으로 사료된다.

### 3.1.2 經典相承隸省에 근거한 자형

①走部 각주에서 “《說文》從天從止，今依經典相承作走(《說文》에서는 夭와 止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경전에서 널리 전승된 자형은 走로 쓴다).”라고 하였다. 즉 《說文》자형은 辵이지만, 경전에서 널리 쓰이는 𨇗자형은 走라고 밝힘과 아울러 그 자형을 주부수로 내세우고 있다.

②鬲部<sup>15)</sup> 각주에서 “鬲部，音歷，鼎屬。《說文》作鬲，經典相承隸省作鬲。凡從鬲者皆放此(鬲部， 자음은 歷이다. 鼎에 속하는 기물이다. 《說文》에서는 鬲로 썼으며, ‘경전상승예생(경전에서 널리 전승하여 쓰이는 ((소전에서) 생략된 예서(해서) 자형)’은 鬲으로 쓴다. 무릇 鬲으로 구성된 것은 모두 이와 같은 형식을 적용(모방)한다.”라고 하였다. 즉 經典相承隸省의 자형을 주부수로 내세우고 있다.

③玉部 각주에서 “象三玉相連形。古文作𤣥，經典相承隸省作玉，凡字玉在左者皆省點(玉部， 세 개의 옥을 서로 이은 모양을 본뜬 것이다. 고문은 𤣥로 쓴다. ‘경전상승예생(경전에서 널리 전승하여 쓰이는 ((소전에서) 생략된 예서(해서) 자형)’은 玉으로 쓴다. 무릇 글자에서 玉이 좌측에 위치하면 모두 점을 생략하였다.”라고 하였다. 玉자의 古文자형과 隸變이후 자형을 제시하고, 나아가 玉자가 좌측 편방으로 쓰일 때는 點을 생략하여 王의 자형을 띤다고 설명하

15) 《五經文字》에 수록된 鬲을 구성요소로 하는 모든 글자는 經典相承隸省의 자형인 鬲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소전도 중요하지만 당시에 널리 통용되던 자체인 예변 이후의 생략된 자형도 존중하였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표준편방으로 확정지으려는 의지가 돋보인다고 하겠다. 《五經文字》鬲部の 鬲편방은 위부분이 鬲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玉篇》270支部에 수록된 敲의 편방이 高, 《玉篇》208部의 𤣥이 𤣥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처럼 《五經文字》鬲(鬲)部 수록자의 편방과 《玉篇》에 수록된 유관 자형을 통해 당시에는 이런 자형이 정자 행세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마도 《石經》의 자형에서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있다. 이처럼 《五經文字》는 부수 자형과 실제 편방으로 쓰일 때 변화된 자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해당 부수 자형의 근거에 대하여도 설명하고 있다.

④𠂔部 각주에서 “𠂔部, 大玄反, 《說文》作𠂔, 象草木實垂條形, 今經典相承作𠂔, 東西之西, 從八, 與此不同(𠂔部, 자음은 大玄반절이다. 《說文》에서는 𠂔으로 썼는데, 초목의 열매와 아래로 늘어진 (가지) 모양을 본 뜬 것이다. 지금 ‘경전상승(경전에서 널리 전승하여 쓰이는 자형)’은 𠂔로 쓴다. 東西의 西는 八을 구성요소로 하며, 이것과는 다른 글자이다.”라고 하였다. 《說文》자형 𠂔를 대신하여, 경전에서 널리 쓰이는 자체인 𠂔를 주부수로 내세우고 있다.

⑤𠂔部 각주에서 “𠂔部, 音遷, 《說文》作𠂔, 今經典相承隸省作𠂔, 案此文從𠂔, 與栗字之上文相類而義不同(𠂔部, 자음은 遷이다. 《說文》에서는 𠂔로 썼는데, 지금 지금 ‘경전상승예생(경전에서 널리 전승하여 쓰이는 ((소전에서) 생략된 예서(해서) 자형)’은 𠂔로 쓴다. 내가 생각건대 이 글자는 𠂔로 구성되어 있는데, 栗자의 위에 있는 글자와 같은 부류이지만 뜻은 다르다.”라고 하였다. 《說文》자형 대신에 경전에서 널리 쓰이는 (소전 자형보다 생략된) 예서(해서)자형을 주부수로 내세우고 있다.

⑥匚部 각주에서 “匚部, 下弟反, 《說文》作匚, 今隸省(匚部, 자음은 下弟반절이다. 《說文》에서는 匚로 썼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자형은 생략된 예서(해서) 이다.”라고 하였다. 《說文》자형 대신 隸省(소전에서 자형이 생략된 예서(해서)의 자형을 주부수로 내세우고 있다.

### 3.1.3 古文에 근거한 자형

①革部 각주에서 “革部, 居百反, 象古文革形(革部, 자음은 居百반절이다. 고문 革자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革은 고문 자형을 모방하여 만든 소전자형이라는 뜻이다.

②酉部 각주에서 “從古文𠂔, 音酉, 象形(고문 𠂔로 구성되어 있다. 자음은 酉이고 상형자이다.”라고 하였다. 즉 酉자형은 고문 𠂔를 구성요소로 한다는 것이다.

## 3.2 올림자 脚注에 나타난 부수 자형의 근거

### 3.2.1 《石經》에 근거한 자형

①冑部의 冑자 각주에서 “冑, 丈又反, 從由下冑, 兜鑿也. 冑裔字從肉, 今依《石經》變肉作冑, 與冑相類, 今冑胤字別見肉部(冑, 자음은 丈又반절이다. 由아래 冑로 구성되어 있는데, 투구라는 뜻이다. 후예를 나타내는 冑裔의 冑자는 肉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肉을 月로 쓰는데, 冑와 서로 비슷한 부류(모양)이다. 지금 후대를 나타내는 冑胤의 冑자는 달리 肉部에 보인다.”라고 하였다. 투구를 나타내는 冑와 후예를 나타내는 冑자가 구성요소로 하는 冑와 冑이 해서 자형은 비슷하지만, 하나는 모자이고 하나는 육친과 관계가 있음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肉자를 月로 쓰는 것은 《石經》에서 근거한 附形部首라는 것이다.

## 3.3 새로운 部首字形을 제시한 것

여러 측면에서 《五經文字》와 직접 비교 대상이 되는 전적은 《玉篇》이다. 《五經文字》와 《玉篇》의 主部首 자형을 비교하면 차이점이 발견된다. 《五經文字》가운데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전통 자형과 다른 새로운 부수 자형을 내세운 예도 발견된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艸部 각주에서 “艸部, 音草, 從二屮, 象草初生之形(艸部, 자음은 草이다. 두 개의 屮로 구성되어 있다. 풀이 처음 나오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라고 하였

다. 이를 통해 원래 부수 형체는 艸임을 알 수 있다. 艸형의 근거(유래)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지만, 이 책의 통례에 의거해 보자면 역시 《石經》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또 艸部를 부수자형으로 내세우지 않고 직접 艸部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문자사용 실태에 근거한 것으로, 부수와 그 소속자의 관계를 더욱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3.1처럼 주부수의 근거를 제시하는 통례를 따르자면 艸部의 각주는 “艸部, 音草, 《說文》從二屮, 象草初生之形. 今依《石經》作艸(艸部, 자음은 草이다. 《說文》에서는 두 개의 屮로 구성되어 있다. 풀이 처음 나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艸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② 𠂔部 각주에서 “𠂔部, 工瓦反, 羊角也. 象形. 俗呼古患反, 作𠂔無中丨(𠂔部, 자음은 工瓦반절이다. 양뿔이다. 상형자이다. 속음으로 古患반절로 발음하는데, 𠂔으로 쓰며, 가운데丨가 없다).”라고 하여, 𠂔을 𠂔으로도 쓰는데 그것은 가운데의丨를 없앤 자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수에 수록된 글자의 편방이나 부건은 𠂔이 아니고, 𠂔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실제 부수로는 𠂔을 세웠어야 한다. 그리고 《說文》에서는 𠂔로 썼는데, 《石經》에 의거하여 𠂔로 쓴다고 하였으면 가장 체례에 들어맞는다.

③ 𠂔部 각주에서 “𠂔部, 象足有所刺𠂔也, 讀若撥(𠂔部, 발이 어느 정도 밖으로 굽어서 어긋난 모양을 본 뜬 것이다. 자음은 撥처럼 읽는다).”라고 하였다. 역시 아무런 설명 없이 𠂔을 主部首로 내세우고 있다. 《五經文字》의 통례에 따르면 “𠂔部, 音撥. 象足有所刺𠂔也. 《說文》作𠂔(址), 今依《石經》𠂔(𠂔部, 자음은 撥이다. 발이 어느 정도 밖으로 굽어서 어긋난 모양을 본 뜬 것이다. 《說文》에서는 𠂔(址)로 썼는데, 지금 《石經》에 의거하여 𠂔로 쓴다).”라고 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부수를 址로 내세워야 전체 체례에 부합한다.

④ 𠂔部 각주에서 : “𠂔部, 音畚( 𠂔部, 자음은 畚이다).”라고 하여, 𠂔을 부수로 확정지었다. 그리고 字획이 畚이라고 부연 설명하여 𠂔과 畚의 관계를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玉篇》에서 畚을 부수 자형으로 내세우고, 《字彙》에서 주부수를 畚, 부형부수를 𠂔으로 하는 것과 비교하면 가히 과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五經文字》의 입장에서는 소속자의 편방 구성 빈도가 높은 𠂔을 부수로 내세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별도의 註解 없이 새로운 자형을 내세운 부수는 자형 근거를 제시한 부수보다 더욱 보편적으로 그 자형 변화를 인정받은 부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당시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사회의 승인을 받은 부수 자형이므로 특별한 주해가 필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4. 結 論

《五經文字》는 唐代에 흥성한 字樣學이라는 학술 조류의 대표 저작이며, 당시 정부가 진행한 어문 표준화 정책의 결과물이다. 즉 국정 표준 자형의 확립과 그 이론 근거를 제시한 저작이다. 자양학의 주요 임무는 楷書 자형의 正訛를 판별하고 정자 標準을 제시하는 것이다. 표준 자형을 제정한 뒤에는 반드시 소속 글자를 담을 수 있는 部首에 대한 改革이 필요하다. 부수에 대한 개혁은 부수 수량의 조정 외에도 部首 字形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동일부수 내의 한자 편방의 변이에 따른 主部首의 자형과 附形部首의 자형을 확립하여야 한다.

楷書 체계에 적합한 해서 부수 자형을 확립하는 것도 字樣學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 《五經文字》가 楷書 部首 字形 확립에 끼친 공헌을 귀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附形部首의 字形과 그 根據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五經文字》는 부수 목록과 본문 부수 각주 등 다방면에서 主部首에 대한 附形部首를 제시하고 있다. 附形部首의 제시는 당시 문자 편방 변이 상황과 해당 문자 검색을 고려할 때 시기적절하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部首 字形을 제시하고 그 根據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五經文字》

는 부수 대표 자형의 제시와 아울러 실제 편방으로 쓰일 때 변화된 자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부수 자형의 근거를 제시하고 것이다. 이런 부수 자형에 대한 설명은 역대 자전 가운데, 《五經文字》가 처음이다.<sup>16)</sup> 《五經文字》의 부수 자형의 정확한 근거 설명과 자형 확립에 대한 공헌은 한자학사상 매우 큰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玉篇》에서 해서 부수 자형을 확립하였지만 《五經文字》처럼 자세한 설명이 없을뿐더러, 《玉篇》의 邑을 《五經文字》에서는 阝으로 한 것처럼 서로 다른 것도 꽤 많이 발견된다. 역대 자서 가운데 오로지 《五經文字》를 통해서만 비로소 해서 부수 자형의 근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셋째, 《五經文字》의 부수 자형이 후대 부수 자형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五經文字》는 먼저 小篆 자형을 楷書 자형으로 고쳤고, 편방 구성에서 빈도가 높은 부수 자형을 부수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시대의 추이와 한자 자체의 변화 발전에 부합하는 부수 자형 체계를 수립하였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小篆 자형에서 楷書 자형으로 개혁한 것으로는 木部·攴部·走部·魚部·髟部·玉部·門部·食部·幸部·女部·冫部·西部·匸部·歹部 등이 있고, 또 편방 구성 빈도에 따른 실제 상황을 적용하여 새로 내세운 부수로는 辶部·彳部·艹部<sup>17)</sup>·阝(邑)部 등이 있다.

《五經文字》는 전통적인 小篆 자형에 구애받지 않고 楷書 체계에 적합한 부수 자형과 附形部首 자형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부수 자형과 그 근거를 제시한 것은 《五經文字》가 역대 자전 가운데 최초이다. 또한 문자사용 실태에 부

16) 明代《字彙》阜部에서 “阜部，阜同，阝在左者同(阜部，阜와 같고，阝가 좌측에 위치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고，目部에서 “目部，橫目同(目部，가로로 된 目，즉 冫와 같다.)”라고 하여 主部首와 附形部首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이는 《五經文字》보다 무려 839년 뒤의 일이다.

17) 卅七艹部 각주에서 “艹部”라고 되어 있고， 본문 艹部 각주에서 “艹部，音草。從二中，象草初生之形”라고 되어 있다. 《五經文字》의 통례에 따르면 “艹部，《說文》從二中，象草初生之形。今依《石經》變艸作艹，偏旁從艹者皆放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五經文字》는 艹를 부수 대표 자형으로 확정하였는데， 편방 구성 빈도상 艹를 구성요소로 하는 소속글자가 다수임에 착안한 것이다. 따라서 전대의 《玉篇》을 비롯하여 후대 대부분의 자전에서 艸형을 대표 자형으로 삼았지만， 《五經文字》는 문자의 구성과 사용 실태를 중시하여 艹형을 대표 부수 자형으로 내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합하는 새로운 부수 자형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부수 자형의 개정과 확립에 구현된 자양학 정신의 또 다른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한 것과 같이 《五經文字》는 해서 부수 자형의 확립과 아울러 그 근거를 제시하였고， 또 최초로 부형부수를 제시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五經文字》는 《玉篇》의 부수를 과감하게 통합하여 부수 수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아울러 楷書 자형에 적합한 부수 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는 明代 梅膺祚의 《字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룬다.

#### < 參考文獻 >

《說文解字注》，東漢·許慎 撰，清·段玉裁 注，天工書局，1987.

原本《玉篇》殘卷，梁·顧野王，中華書局，1985.

大廣益會《玉篇》，梁·顧野王 編，孫強 增修，陳彭年 重修，中華書局，1987.

《五經文字》，清·鮑廷爵 《後知不足齋叢書》初編.

《九經字樣》，清·鮑廷爵 《後知不足齋叢書》初編.

《字彙》，明·梅膺祚，上海辭書出版社，1991.

<論《玉篇》增刪《說文》部首—漢字新分部法初探>，李孝定，《大陸雜誌》，第七十卷第三期.

<唐人對《說文解字》部首的改革>，施安昌，《古宮博物院院刊》，1981年第4期.

<張參五經文字之研究>，李景遠，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研究所碩士學位論文，1990年2月.

#### < 中文提要 >

唐張參《五經文字》是唐朝興盛的字樣學代表著作之一，其主要內容是辨証經典文字而提出楷書標準字形。該書收錄經籍中的文字3250個，將其分為160部，並採取偏旁部首排列。其所分的160部與《說文》540部·《玉篇》541部相比有了大幅度的減少，並對傳統部首數量進行了改動。《五經文字》在部首方面的貢獻不僅僅在於減少了傳統

部首의數量, 更在于提出了楷書部首字形的來源并確立了附形部首字形。該書在部首目録·部首脚注·本文字頭的注解等處提出了楷書主部首與附形部首的字形。由此可見, 楷書部首形体主要源于《說文》小篆的隶定, 其次源于《石經》所刻的字形; 并且, 由此還可以斷定最早提出附形部首的就是《五經文字》。所以說, 該書在楷書部首形体的確立方面最有貢獻也不爲過。

關鍵詞: 《五經文字》、楷書部首字形來源、楷書 主部首、楷書 附形部首

투 고 일: 2010. 07. 29

심 사 일: 2010. 08. 07-08. 25

게재확정일: 2010. 09. 09